

건협소식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 일본 예방의학사업 시찰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임한중)는 '97. 직원 해외연수교육의 일환으로 경북지부 차상열 관리의사를 단장으로, 서울지부 임옥숙 서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10명을 일본에 파견했다.

이 연수교육은, 일본 예방의학사업 시설 및 현황을 견학함으로써 국외 선진기술정보를 습득하고 견문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5박 6일간 일정으로 실시된 이 연수기간 중 견협 직원들은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와 동경도 및 오사카 예방의학협회 등을 방문하는 한편, 일본 예방

의학사업 실무자들과 보건의료 관련 정보의 상호 교류 및 의견 교환했다.

인천지부, 협회 창립 33주년 기념 무료 검진

인천지부는 협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시민과 결식 노인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지부 검진센터에서 일반 시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당뇨·소변·혈액형·기생충 검사와 혈압·비만도 측정 등을 실시했다.

인천지부는 또 11월 6일, 사랑의 이웃집 무료 급식소에서 결식 노인 및 자원봉사자 등 70

여명에게 기초·소변·간기능·동맥경화·고지혈증·신장질환·당뇨병·간염·빈혈·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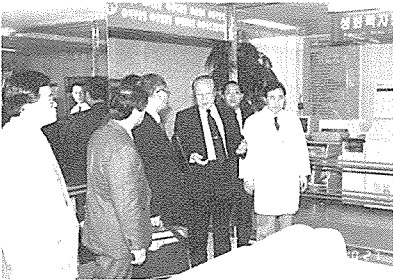
부산지부, AIDS 예방 홍보 사진 전시회



부산지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구포역 광장과 지하철 하단역에서 AIDS 예방을 위한 홍보사진 전시회를 갖고 관련 유명인을 배포했다.

중국 보건의료관계자 한국 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의과대학 등 견학, 국내 보건의료정보 습득



중국 예방의학과학원 기생충병 연구소 潘嘉云(Pan Jiayun) 부소장을 비롯해 장시성·안휘성·광시성 기생충병연구소 교수 등 중국 보건의료관계자 6명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생충관리 분야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을 위하여 국내 기생충관리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조사·파악하고 진일보한 한국 기생충퇴치 사업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 및 서울·경기·대구·경북·부산·경남지부와, 서울의대와 가톨릭의대, 경주시 보건소 등을 방문하고, 예방의학 및 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등의 방향, 양국 공동 기생충퇴치사업의 전개 방향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들은 또한 현대자동차·신풍제약 등 국내 자동차 및 제약 기술 현황을 견학하기도 했다.

한편 한중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지난 '94년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와 중국 위생부 간의 보

건의료분야 증진 협약에 따른 것으로, '95년부터 KOICA의 지원으로 양국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임한중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을 비롯한 기생충관련 전문가 등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기생충 감염 현황 파악과 감염자 치료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한중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기생충병 관리에 대한 우리 나라의 축적된 행정적·과학적 기술을 중국에 전수함으로써 중국의 기생충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상호간 교류를 한층 원활히하여 양국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농촌의학회 학술대회서 연구결과 발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김선웅 검사과장이 지난 11월 7일 개최된 바 있는 1997년도 한국농촌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강원도 H군 주민의 스파르가농증 혈청역학조사"를 주제로 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학술 논문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지부 자체 학술조사연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농촌의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흡연·고혈압·당뇨병·간흡충 등 농촌 지역주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건강증진시대의 고혈압 현황과 관리방안(농촌지역 중심)"에 관한 심포지움이 개최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과 성정웅 사무총장, 조재현 조사연구국장 등은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농촌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등 농촌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명을 대상으로 순회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경남지부, 노인대상 강연



경남지부는 지난 10월 16일, 진해시 석동 진해농협 강당에서 장수대학생 11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 주제는 '골다공증'으로, 마산중앙자모병원장인 안홍준 박사가 강의를 했다.

경남지부, 노인 무료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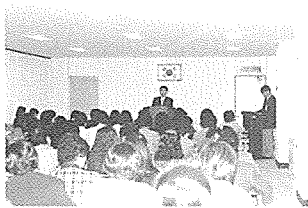
경남지부는 지난 10월 27일에서 30일, 창원시와 합동으로 창원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경북지부, 새마을 부녀회원 대상 공개강좌



경북지부는 지난 10월 24, 28, 29일, 동부권·남서부권·북부권 등 새마을 부녀회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강의는 경주 동국대 의대 김두희 학장과 경북 의대 정문숙 교수가 각각 맡아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관리의 중요성', '여성 건강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충북지부, 보건교육 활발



충북지부가 지역주민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충북지부는 지난 10월 13일 보건관계자 80여명을 초청,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는 한편 청주시 초중고 양호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10.14), 17일과 23일에는 사회생활체육회 탁구회원과 불링회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의 필요성, 여성건강관리 등에 관한 강연을 실시했다.

대구지부, 3지구 의보실무자 대상 보건교육



대구지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구 3지구 의보조합 회의실에서 지구내 사업장 의료보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암의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지부, 중고생 대상 순회 금연교육



전북지부는 지난 10월, 전주 남풍중·김제상고 등 관내 10개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7천여